

# IPO 잣대는 '미래성장가치'... 1월 절반이 '특례 상장'

적자 기업도 성장성 증명엔 가능  
테슬라 상장 풋백옵션 완화도  
기술특례 상장기업엔 자금지원  
카페24 공모규모 5000억 넘어

〈연도별 기술특례상장 현황〉

연도	상장기업수	총공모금액	바이오평균시총
05	2	50.4	134.3
06	1	22.7	97.5
09	3	40.9	59.8
11	3	15.5	40.2
13	4	60.9	90.3
14	1	23.4	152.4
15	10	183.1	120.4
16	8	296.2	227.4
17	3	45.2	97.3

자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 매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최근 현대차, POSCO를 뛰어 넘었다.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무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정부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미래성장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달에만 3개 기업이 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정부 "상장제도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적자를 낸 기업도 성장성

이 증명되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거래소의 테슬라(Tesla) 요건 신설을 통해서다. 지난 2005년부터 '기술평가 특례상장'이란 제도를 통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는 바이오 업종에만 혜택이 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테슬라 상장, 상장 주선인 추천 등 특례 요건을 확대해 상장

의 문턱을 낮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밝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상장의 풋백옵션 완화도 약속했다. 테슬라 상장 요건 중 상장 후 3개월

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현 주가의 90% 수준으로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주관 증권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풋백옵션을 공모가의 90%에서 80%로 낮추고, 행사 기간을 상장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1월 기업공개(IPO), 절반이 특례 상장 기업

이달에만 3개 기업이 특례 상장을 위해 청약에 돌입한다.

특히 국내 1호 테슬라 상장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카페24'가 청약을 시작한다. 카페24는 2016년 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 솔루션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로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 받고 있다.

공모규모도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페24의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면 테슬라 상장에 따라나서는 벤처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링크제니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이달 중순부터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다. 두 기업 모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다. 링크제니스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류마티스관절염, 천식 치료제 등 8가지 적응증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IB 관계자는 "1월에 청약을 진행하는 6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특례 상장 기업이다"면서 "앞으로 기업의 주가 수준은 현재 매출액이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9일 기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5조8799억원으로 현대차(33조5922억원), POSCO(32조9130억원)를 웃돌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이 이뤄지면 단숨에 시총 3위에 자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저비용·고효율 '소형점포'로 전략 변경

〉〉 1면 '로봇행원·소형점포...'서 계속

그러나 일부 은행에선 점포 폐쇄보다는 '소형 점포' 신설로 전략을 바꿨다. 인력·임대료 등 점포의 규모를 줄여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매 금융, 관계형 금융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방은행에서 수도권 진출 시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지방은행들은 지난 2015년 금융 당국이 영업권을 경기도까지 확대하면서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냈다. 수도권에 진출한 지방은행들은 점포의 상주 직원을 4~6명으로 줄이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 2층 이상에 소형 점포를 열고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소형점포를 57개까지 확대했다.

이에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점포 수는 2015년 9월 말 962개에서 2016년 9월 말 972개로 오

히려 10개 늘었다. 올해는 Sh수협은행도 '소매(리테일)금융'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소매중심 채널전략에 나선다.

수익성·접근성 등에 따라 전 영업점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아파트 및 상업지구 등 소형 점포를 설치해 수신자금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브앤스poke(Hub & spoke)' 방식으로 기업여신이나 자산 관리는 허브(거점) 영업점으로 넘기고 스킵(소형)점포에선 리테일 영업만 한다는 취지다.

안영배 이사는 "은행권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하고도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비대면 거래 확대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적요인의 도입 시 실업과 전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삼성증권 해외주식 매매 고객 환율우대 혜택

삼성증권은 100만원 이상 외화를 매수하고, 환전한 금액 중 50% 이상 온라인 해외주식을 매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2018 바이 글로벌(Buy Global) 환전 빅세일' 이벤트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MTS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후 이벤트 기간 중 누적으로 100만원 이상 외화를 매수하고,

매수한 금액의 50% 이상 해외주식을 온라인으로 매매하면 된다.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홍콩 달러(HKD), 유로화(EUR)는 환전수수료의 85%를, 대만 달러(TWD)와 베트남 동(VND)은 환전 수수료의 7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 한국투자증권 '리자드 ELS' 6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1일까지 HSCEI(홍콩H지수), 니케이225, 유로스탁스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9739 회 리자드 스텝다운형'을 총 6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리자드 ELS'란 도마뱀(Lizard)이 위

기 시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는 것처럼 ELS가 조기에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중도에 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리자드 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말한다. 'TRUE ELS 9739회'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으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24개월, 30개월, 80%(만기) 이상이면 연 6.2%로 수익 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 "매출보단 수익성" 영업이익률 19% 달성

| IPO 기자간담회 |

워터스포츠웨어 전문기업 '배럴'

래쉬가드 수요, 수영복 시장 위험 수요예측 후 내달 코스닥시장 상장

워터스포츠웨어 및 용품 전문기업 배럴이 내달 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배럴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22, 23일 청약을 실시하고 내달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배럴은 설립 2년 만에 국내 래쉬가드(Rashguard)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워터스포츠웨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래쉬가드는 햇빛 노출에 의한 화상이나 찰과상에 의한 발진(rash)으로부터 피부를 보호(guard)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성 워터스포츠웨어다.

이상훈 배럴 대표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워터스포츠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이 변화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에서 국내 물놀이



서종환 배럴 공동대표.

배럴

인구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래쉬가드의 수요는 기존 수영복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G마켓이 906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여성 수영복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래쉬가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원피스 수영복(23%)보다 선호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실제 래쉬가드의 인지도 및 수요 증

가는 배럴 매출의 고속성장을 가져왔다. 배럴의 매출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55.7%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305억원)은 이미 2016년 전체 매출(242억원)을 초과달성한 상태다.

배럴의 영업전략은 매출보다는 수익성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실제 2016년 영업이익률은 18.8%로 의류업계 평균 영업이익(7.0%)을 크게 웃돈다.

이 대표는 "배럴은 위탁대리점이 전혀 없다"며 "매출의 58%가 백화점과 면세점에 있는 직영매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매출의 26%가 자사 온라인 몰에서 발생한다"며 "자사몰에서 20%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의류 브랜드는 국내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배럴은 높아진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진출에 첫 발을 뒀다.

향후 브랜드와 제품의 카테고리를 확장해 사업 구조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8000원~9500원으로 총 171만주를 공모한다. 내달 1일 상장예정인 배럴의 대표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SNS로 투자정보 공유 '쌈'... "슈퍼 그웨잇"

하나금융투자, 신개념 오픈증권 출시

하나금융투자는 정보교류와 소통기능, 편의성을 두루 갖춘 신개념 오픈 증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채널인 '쌈(SAM·Show Stock Advise Me)'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쌈(SSAM)'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투자정보가 무료로 제공되며,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금융투자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 1Q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인 1Q



HTS 사용자도 SNS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양방향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김문호 기자 kmh@〉

또한 커뮤니티 기능이 탁월하다. 언제든지 계좌 관리직원과 상담을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종목의 채팅방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자유롭게 정보교류도 가능하여 정보 습득이 용이해졌다.

포진해 있는 여러 금융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국내외 주식과 금융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개한다.

조대환 하나금융투자 e-Business실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손님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실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며, "손님의 니즈에 충실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금융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